

Md.b.2

장애인 특례 입학 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 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

1996년 4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장애인 특례 입학 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 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

한국대학교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 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

발행처 : 한국대학교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발행연도 : 2010년 12월
발행인 : 한국대학교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발행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한국대학교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한국대학교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한국대학교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펴낸날 · 1996. 4.

펴낸곳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대표전화 · 521-5364

그림전송 · 584-7701

인쇄처 · 도서출판 함께걸음

5,000원

서 문

오늘 한국사회는 과거 20-30여년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미 국민 1인당 소득(GNP)이 1만불을 넘어섰고 국가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가난했을 때 보다 더 공동체 의식이 메마르고 이기적인 탐욕에 빠진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인간 삶의 질적 발전을 토대로 하는 유엔의 지표(UNDP)를 보면 한국은 세계 120위 권 밖에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과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경제적 탐욕만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도 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실제로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 중 가장 증액이 안된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이고 더욱이 현 정부 출범 이후는 비율 면에서 더 줄어들었지만-그러나 이 복지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지의 혜택은 도리어 중산층 이상 가진 자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 결국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에서 조차 차별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들은 더 처절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의 장애인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장애인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인권에 근거해야 한다. 장애인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그 장애 정도에 알맞는 교육과 직업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전문인으로 자립,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장애인교육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의무교육에서 조차 배제하였다. 정부가 장애인의 국민적 기본권을 빼앗은 것이다.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만 아직도 다수의 장애인이 의무교육조차 못받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장애인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의 미비 등 여러 가지로 분석되지만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학교를 갈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원하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인에게 주는 부가적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생색내는 것만 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도리어 차별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제도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장애인이 일찍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으면 특례입학이란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 교육은 외면하고 특례입학제도를 만들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정부가 특례입학이라는 허울좋은 선심성 정책만을 발표하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장애 학생과 대학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또 대학들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례입학이란 제도를 통해 도덕적 이득을 얻고 더 나아가 경제적 수익도 얻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이용해 꿩 먹고 알 먹는 '장삿속'을 채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특례 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대학 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성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마저 장애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장애인 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소 보고서는 편의시설 설치도 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차리기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고발장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우리의 의사표현이며 동시에 앞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대안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사단법인 시민단체지원기금 (대표 이세중)'으로 수행되었다. 이런 연구가 가능하게 연구비를 지원해준 관계자 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연구소의 연구위원, 김정열 책임연구원, 박옥순·조문순 연구원, 자원활동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통계처리를 도와주신 김유숙 (장애우대학 6기, 현 장애인신문기자), 이돈주 (한양대교통공학과 석사과정)씨와 특히 본 조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 해주신 이동석 (장애우대학 8기·약사), 이경아 (장애우대학 3기·중앙대학교 사회복지과 석사과정), 최옥현 (장애우대학 8기·약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96. 4.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장애인 특례 입학 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

•차 례•

▣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I. 조사의 개요 / 19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2. 주요 조사 내용
- 3. 조사의 설계
- 4. 자료 분석 및 처리
- 5. 조사의 한계점

II. 설문조사 보고서 / 23

- 1.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
- 2. 조사 현황 및 결과

III. 설문조사에 따른 대안 / 35

■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 실시 대상 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I. 조사의 개요 / 4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조사의 내용
3. 조사의 설계
4. 조사의 대상
5. 자료분석 및 처리
6. 조사의 한계점

II. 조사결과 요약 / 45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2. 학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4. 출입문(구)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5. 강의실과 도서관에 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6. 복도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7. 승강기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8. 화장실과 세면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9.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10. 공중전화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11. 건물 내 계단 및 경사로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 결과

III. 학교별 조사결과 / 52

1. 강남대학교 / 52
2. 경희대학교 서울 / 63
3. 경희대학교 수원 / 71
4. 고려대학교 서울 / 81
5. 고려대학교 서창 / 91
6. 공주대학교 / 101
7. 나사렛신학 대학 / 111
8. 대구대학교 / 119
9. 명지대학교 서울 / 125
10. 명지대학교 용인 / 135
11. 서강대학교 / 145
12. 연세대학교 서울 / 155
13. 용인대학교 / 165
14. 이화여자대학교 / 173
15. 장로회신학대학 / 181
16. 제주대학교 / 189
17. 한양대학교 서울 / 197
18. 한양대학교 안산 / 207

IV.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 215

V. 표목차 / 223

VI. 설문 문항과 체크리스트 / 235

1.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간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2.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3.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4.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5.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6.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7.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8.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9.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10. 장애인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간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

본 연구는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간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생활에 있어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 100명이며, 설문지는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의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례 입학 제도의 특성상 고졸 이하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생활에 있어 장애 학생은 학업, 생활, 사회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업 면에서는 교수와의 의사소통 부족, 학습 자료 접근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셋째, 대학 생활에 있어 장애 학생은 사회적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학 생활에 있어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대학 생활에 있어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있어 학업, 생활, 사회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 면에서는 교수와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학습 자료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응 측면에서는 대학 생활에 있어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I. 조사의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 시행 2년째인 현재,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24개 대학 27개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장애 학생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아 '소수'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너무 어렵다거나, 혹은 쉽지 않다고 종종 불편을 말하곤 한다. 장애 학생들이 주로 느끼는 대학 생활의 어려움은 편의시설 등 이동의 문제, 학사 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 교수나 학우 등과의 인간관계 등 장애인의 접근권(Right to Access)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통학문제부터 시작하여 강의실로의 이동, 식당, 화장실, 도서관 등으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동선을 제외하고라도 강의실조차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은 장애 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 자체가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 내 전반에 걸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청각 장애인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장애인의 대학 내에서 교육의 권리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특히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1995학년도에 장애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전국 6개 대학 중 장애 학생의 명단 입수가 가능한 5개(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대구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대학의 95학번 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99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 까지 20일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95학번을 선정한 이유는 장애 학생이 1년 동안의 학교생활로 인해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서 오

는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소책자를 발간하고 각 대학에 장애 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학교 내의 교육 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하고자 설문 조사를 했다.

2. 주요 조사 내용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 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이동의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내용은

-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 대인관계의 어려움
-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학교 건물 내 계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 주차 시설 이용의 어려움
- 공중전화 시설 이용의 어려움
- 강의를 듣는 데의 어려움
- 학교생활에서 종합적인 곤란 사항 등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했다.

3. 조사의 설계

- 가. 조사 기간: 199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 나. 조사 대상: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대구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등 5개 대학 95학번 장애 학생 83명
- 다. 조사 방법: 조사자와 직접 면담(전수조사)
- 라. 조사 내용: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 마. 조사원: 장애우대학생 10명
- 바. 설문 범위: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 내에서의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

4. 자료 분석 및 처리

설문은 각 질문에 대해 보기를 제시하고 이들 보기에 대한 설문 당사자의 우선 순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낮아질수록 무응답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문 당사자가 제시된 보기 이외의 대답을 할 경우 이는 기타로 분류하여 별도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5. 조사의 한계점

모집단의 부족 및 낮은 설문응답율로 인하여 관측 자료 수가 적었으며, 따라서 장애 유형별 분석이 불가능하여, 전체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한 빈도수분포(Frequency Distribution)분석을 하였다.

II. 설문 조사 보고서

1. 조사 대상의 일반 사항

장로회신학대학교 1명, 서강대 5명, 대구대 21명, 연세대 8명 등 모두 35명이 설문에 응했다. 애초 설문 조사는 학내 사정 상 학생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희대학교를 제외하고 연세대학교 12명, 이화여자대학교 3명, 대구대학교 44명, 장로회신학대학 1명, 서강대학교 23명 등 총 83명의 특례 입학 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의 명단을 확보하여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95년 특례 입학을 통해 대입을 한 장애 학생에게 지난해 11월 우편 발송을 했다. 그러나 10%의 회수율을 보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여일 동안 다시 개인 면담을 통한 직접 조사를 실시했으나 43%에 해당하는 35명만이 설문에 응했다.

〈표0-1〉 대학별 설문 응답자

학교	장신대	서강대	대구대	연세대	계
설문응답자	1	5	21	8	35

장애학생들이 있는 단과대의 구분을 보면 사범대학이 가장 많은(57%)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대학교 조사대상 학생들은 44명 중 초등특수교육과 1명, 치료특수교육과 1명, 직업재활학과 1명, 언어치료학과 1명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과가 모두 21명이나 되는 것처럼 장애 학생 대부분은 사범대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표0-2〉 설문응답자의 소속단과대별 분포

소속 단과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 대학	공과(학) 대학	인문과학 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 대학	기타	계
설문 응답자	20	1	4	2	5	2	1	35

대학에 들어간 장애 학생은 연세대학교의 경우 총 12명 중 청각장애인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장애인이었으며 대구대학교는 특례 입학으로 대학으로 들어간 95학번 장애 학생 44명 중 시각장애인 13명, 청각장애인은 모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이 모두 지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해당됐다. 이같은 상황은 서강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 학생 23명 중 시각장애인이 4명, 청각장애인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체장애인이 95학번 장애 학생이다. 설문응답자도 이에 준하여 결과가 나타났는데 표3)과 같이 35명 중 시각장애인 9명과 청각장애인 5명을 제외하고 21명(60%)이 지체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표0-3〉 설문응답자의 장애유형별 구분

장애유형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계
설문응답자	21	9	5	35

설문조사에 응한 장애학생의 장애의 정도를 살펴보면 1급과 2급 등 중증장애인이 28명(78%)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응답자의 장애 정도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라서 낮은 설문응답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열악한 대학 생활을 적절하게 반영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나타났다.

〈표0-4〉 설문응답자의 장애등급별 구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설문응답자	11	17	3	1	3	35

2. 조사 현황 및 결과

1)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있는가?

장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특히 매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모두 14명(39%), 조금 어렵다며 어려움을 표한 사람까지 합하면 모두 63%에 해당하는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0-5〉 당신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가?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괜찮다	매우괜찮다
설문응답자	14	8	11	2

2)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장애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대학 생활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히는 어려움을 답한 34명 중 13명(38%)이 대인관계와 13명이 학사관리(38%)를 지적했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8명이 지적했다. 대인관계라 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 정보교환 부족으로 학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사관리라 함은 시험과 수강신청 등 제반 서류발급 등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답했는데 이를 위한 학교 측의 타당한 배려가 전혀 없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편의시설 등 학교시설 부족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답변은 두 번째로 어렵다(37%)고 지적했는데, 편의시설 문제 등이 대인관계, 학사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란에 설문응답자들의 진솔한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한 학생은 학교 시설(편의시설 등)이 수강신청을 제한한다고 답변했으며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장애 학생은 장애특성상 주위 사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기도 하고 한 장애 여학생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등이 전무하다며 무대책인 대학 당국과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 청각장애인은 강의가 들리지 않아 수업받기가 힘들다며 수화통역, 혹은 대필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표0-6〉 학교생활에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다른학우들과의 대인관계	13	7	10	0	30
학교시설	8	13	8	0	29
학사관리	13	8	9	0	30
기타	0	1	0	5	6
계	34	29	27	5	95

3)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주로 교수와의 면담기회,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 학과내의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보기였다. 이 중 교수 등과의 면담기회를 찾는 답변을 한 사람이 27명으로서 월등하게 많은 답변을 했는데 이 중 13명은 이를 첫순위로(37%)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5명이 답변한 선배들과의 교류기회를 부족을 지적했는데 11명이 두 번째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는데 모두 24명이 지적했으며 이 부분을 대학생활의 세 번째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과 내 어울리는 친구가 없음을 어려워 하는 것은 네 번째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44%), 이는 학과 내에서 인과 관계 등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 기타에서 눈에 띄는데 편의시설 등 시설이 열악하여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동아리활동, 학회활동 등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학우와의 관계는 풀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교수나 행정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형편없다며 기성세대의 각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을 제한하는 문항에 비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문항에 많은 답변의 빈도수가 나온 것으로 보아 장애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0-7〉 대인관계의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학과내에서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	2	1	5	16	24
동아리 활동이 어려워 타과 학우를 사귄 기회가 없다	8	5	11	0	24
교수님과의 면담을 하기가 쉽지않다	13	8	3	3	27
선배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	7	11	4	3	25
기 타	0	1	1	0	2
계	30	26	24	22	102

4)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있는가?

도서관 이용에 대한 문항부터는 주로 편의시설 부족으로 야기되는 장애 학생의 학업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22명의 학생이 이 문항에 응답해왔는데 계단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어렵다(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계단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4명이나 됐다. 또한 서가 사이가 좁아 도서열람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모두 10명이며 도서관에 점자도서와 전자도서 등이 없어서 도서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시각장애인이 모두 9명이다. 이중 8명의 시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 어려움의 첫째 원인으로 점자도서와 전자도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 출입문(개찰)폭이 좁거나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9명,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8명, 도서관 2층 이상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람이 5명이다. 한편 기타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도서관 승강기가 각 층에 서지 않는 점이며 한 청각장애인은 도서 대출증 발급처에서 직원과의 대화가 불편한 점을 지적했다.

〈표0-8〉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다	3	5	3	2	13
도서관 출입문(개찰구) 폭이 좁거나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7	2	0	0	9
서가사이가 좁아 도서열람이 어렵다	1	4	3	2	10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0	2	3	3	8
도서관 2층이상을 이용할 수 없다	0	3	2	0	5
도서관에 점자도서와 전자도서 등이 없다	8	1	0	0	9
도서관 건물로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으나, 손잡이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1	0	1	4
도서관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너무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0	0	0	0	0
기 타	1	0	1	1	3
계	22	18	13	9	61

5)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장애학생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은 셀프서비스라서 식당을 혼자 이용하기 어렵다가 27명이며, 이중 22명은 이 점을 식당 이용의 어려운 이유의 첫 번째로 지적했다. 식당 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손잡이가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모두 15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층 이상의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람이 모두 6명, 식당을 이용하는데 유도블럭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6명이며 식당 출입문의 폭이 좁다가 5명, 식당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좁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3명이다. 기타로 지적한 사람이 모두 5명인데 식당내 휠체어를 타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2명이 지적했고, 한 청각장애인은 식권 구입시 직원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불편을 대담했다.

〈표0-9〉 식당 이용의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식당입구에 계단이 있는데다 손잡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3	10	2	0	15
식당 출입문 폭이 좁다	2	0	3	0	5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0	3	1	2	6
셀프서비스라서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	22	4	0	1	27
2층이상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0	3	2	1	6
식당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0	0	1	2	3
기 타	1	0	3	1	5
계	28	20	12	7	67

6)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있는가?

강의실 입구에 계단이 있는데다 손잡이 문제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13명으로서 계단문제가 역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건물 내의 이동(복도)공간이 좁아 불편하다는 지적도 12명으로 나타나

이동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유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이중 7명은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그 외에도 2층 이상의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7명, 강의실이 계단식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8명, 강의실 출입문의 협소문제로 지적됐으며(4명), 경사로 문제도 지적됐다. 이외에 기타로 지적된 문제는 강의실 동선을 따라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휠체어가 들어설 공간이 없어 입구 쪽에만 앉게 되므로 춤다라는 지적을 했고 약시인 한 장애학생은 강의실을 알리는 번호표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청각장애인 3명은 교수의 강의를 알아들을 수 없어 학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화통역이나 대필형식의 자원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표0-10〉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문 항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강의실 입구에 계단이 있는데다, 손잡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6	4	3	0	13
강의실 출입문 폭이 좁다	0	3	0	1	4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7	0	2	2	11
건물내의 이동(복도)공간이 좁다	5	3	0	4	12
2층이상에 있는 강의실을 이용할 수 없다	3	2	1	1	7
강의실이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학업이 어렵다	2	1	4	1	8
강의실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너무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	1	0	1	0	2
기 타	1	2	0	1	4
계	24	14	11	10	61

7)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화장실 내가 좁거나(12명),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9명)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화장실내가 좁아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는 이유를 첫번째 이유로 지적한 사람이 무려 8명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역시 유도블럭 설치(8명)문제를 지적했다. 화장실 내에 손잡이가 없는 것도 지적(8명)했는데 그 이외에도 화장실 입구의 턱(4명), 세면대에 손잡이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타로 지적된 것은 대부분 화장실내에 좌변기가 없어 용변을 보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적어도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좌변기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것이다.

〈표0-11〉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다	1	2	1	0	4
화장실 출입문 폭이 좁다	1	3	1	4	9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블럭이 없다	5	1	1	1	8
화장실 내가 좁다	8	1	3	0	12
화장실 내에 손잡이가 없다	3	4	1	0	8
세면대에 손잡이가 없다	2	0	0	1	3
기 타	1	3	0	0	4
계	21	14	7	6	48

8) 학교 건물 내 모든 계단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계단의 경사도가 매우 가파르다(14)와 계단의 폭이 너무 작아서(14)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었고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서(10명)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지적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유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타로 지적된 사항은 계단 양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계단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다고 지적했으며 계단이 있는 곳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0-12〉 학교 건물내 모든 계단에서의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계단의 경사도가 매우 가파르다	7	4	1	2	14
계단의 폭이 너무 작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6	7	1	0	14
계단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4	4	1	10
계단에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0	1	3	8
기 타	0	1	1	0	2
계	18	16	8	6	48

9) 주차시설과 관련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차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이 별로 없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빈도수는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장애인용 주차장이 없다(8명), 장애인용 주차안내판이 없다(8명), 장애인용 주차장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렵다(7명)는 주장도 있으며 그 이외에 주차장이 강의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기타로 지적된 것은 그나마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된 경우가 많아 장애학생의 이용이 어렵고, 강의실 주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장애학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표0-13〉 학교 내의 주차시설과 관련한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장애인용 주차장이 없다	5	0	1	2	8
장애인용 주차장의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기 어렵다	2	2	1	2	7
장애인용 주차안내판이 없다	3	3	1	1	8
주차장이 강의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	3	1	3	0	7
기 타	5	2	0	0	7
계	18	8	6	5	37

10) 공중전화 시설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공중전화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을 지적한 것은 장애인용 공중전화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17명), 공중전화가 건물 안에 없어서(16명) 건물 밖의 계단을 이용하여 전화사용을 하는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공중전화 박스에 턱이 있는 것도 지적됐다. 그리고 동전삽입구가 너무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지적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유도블럭과 점자 번호판 등이 없음을 지적했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용 전화나 팩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0-14〉 공중전화 시설과 관련한 어려움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넷째로 어려움	계
장애인용 공중전화가 없다	10	2	2	3	17
공중전화 박스에 턱이 있다	3	10	1	0	14
동전 삽입구가 너무 높다	1	2	5	2	10
공중전화가 건물안에 없다	9	1	3	3	16
기 타	1	1	1	0	3
계	24	16	12	8	60

11) 강의와 관련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강의와 관련해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1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다른 건물로의 이동이 가장 불편하다(49%)고 지적했으며 점자 도서가 구비되지 않아 학업이 어렵다(29%) 답변하기도 했다. 기타사항으로 교수의 강의를 들리지 않아 교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청각장애인은 지적하고 있다.

〈표0-15〉 강의와 관련한 불편함

	첫째로 어려움	둘째로 어려움	셋째로 어려움	계
10분간의 휴식시간에 다른 건물 등으로의 이동이 어렵다	14	2	1	17
점자도서가 구비되지 않아 학업이 어렵다	8	1	1	10
기 타	6	3	0	9
계	28	6	2	36

12) 기타 종합적인 곤란사항은 무엇인가?

이 문항은 위의 설문 문항에서 제외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삽입한 문항이다. 그런데 의외로 다양각색의 많은 답변이 나왔다.

- 특별히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싫다
- 의학적 치료와 학교생활의 병행이 어렵다
- 체육시간이 어렵다
- 강의에 대한 어려움 이외에도 언어 장애로 인해 학사 업무(학생증 재발급,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등)를 보기 힘든데다 도서관, 식당 직원과의 대화가 훨씬 불편하고 특히 청각장애인은 시설적인 면보다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 습득이 불편하다고 학업면에서는 충분한 자료(점자 도서)가 없어 강의 준비가 안되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각 건물마다 유도블럭이 없어서 이동이 어렵다, 점자도서 등 학습자료가 부족하여 어렵다
- 다른 지역 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보조금이 필요하다
- 장애 여학생은 대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III. 설문조사에 따른 대안

본 조사는 모집단이 부족하고 매우 낮은 응답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어려움이 가감없이 제기됐다고 본다. 장애 학생의 어려움 중에서 주목할 것은 인간관계 형성인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편의시설 설치 부족으로 이동 문제를 안고 있어 정보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습득 장소가 아니라면 학생에게 정보 차단은 학업 성취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편의시설 문제가 장애 학생의 이동권 확보의 걸림돌이라는 단순 논리에서 더 나아가 장애 학생 '학업의 수월성'을 위한 총체적인 여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협의회는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평가제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항을 삽입하여 연차적으로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 학생에게 편안한 시설이면 일반 학생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런 시설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장애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 부과되는 배려나 혜택이 아니고 장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본 연구도 이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모든 시설의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 기준'에 근거한다.

1) 도서관, 이렇게 고치자.

도서관은 당해 학생이라면 모두가 적어도 상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도서관 건물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다면 턱과 계단 옆에 반드시 경사로(유효폭 120cm 이상)를 설치하고 경사로 양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도저히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면 계단 양 옆에 반드시 규정에 맞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도서관 개찰구가 ID카드를 이용한 삼발이식이라면 일반 개찰구 옆에 유효폭 90cm 이상의 비상개찰구를 설치하여 장애 학생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도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독서카드의 높이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반드시 점자로 표시해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서가 사이를 최소 120cm 이상으로 벌려놓아 휠체어를 타고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될수록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나 전자도서를 비치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람실에 도서의 종류를 명시해놓

을 때 점자를 표기해야 한다. 도서관이 독립적인 건물로서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한 학교가 많은데 장애 학생은 각 층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열쇠를 복사하여 장애 학생에게만 주는 방법 등)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용승강기 기준에 근거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일반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이 승강기 안에 연속성 손잡이를 설치하고 각 층을 알리는 번호판에 점자표기를 하며, 장애인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번호판을 새롭게 다는 한편 층 수를 알리는 무인 방송을 한다. 청각장애인의 도서 대출증 발급처에서 직원과의 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화를 배우는 학생을 중심으로 가용 시간을 빌어 자원활동, 혹은 유급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도서관 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을 때는 이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하며 적어도 한 개의 화장실에는 좌변기를 설치하고 변기 옆에 손잡이, 그리고 세면대 옆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도서관 가는 길에 유도블럭 설치하는 다른 건물로의 이동문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식당, 이렇게 하자

학교 내 식당은 당해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만큼이나 갖게 왕래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애 학생이나 일반 학생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한다. 식당 내에 편의시설도 1) 도서관, 이렇게 고치자에 맞게 시설을 바꿔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식권 판매 직원과의 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 등에수화를 배우는 학생이 자원활동, 혹은 유급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식당의 화장실 문제도 도서관의 규정을 참고한다.

3) 강의실, 이렇게 하자

강의실은 학생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 도서관, 이렇게 고치자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계단식 강의실은 반드시 경사로(1:12)를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을 적어도 90cm이상으로 해야 한다. 강의실 동선에 따른 손잡이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상시 마련해야 한다. 강의실 번호표를 약시를 가진 학생의 의견을 받아 크게 해야 하며 수업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대필형식의 자원활동이 필요하다.

4) 화장실, 이렇게 하자

예산문제나 여건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 해도 화장실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화장실 출입문의 폭을 넓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화장실 내로 들어갔을 때 5-6개의 화장실 중 2개 정도를 하나로 만들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내부에는 반드시 좌변기를 설치하고 좌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며 물 내려가는 보턴을 바닥 등에 깔아 장애 학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면대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입구 등의 턱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5) 건물 내 계단, 이렇게 하자

건물 내 계단은 장애 학생 이동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단을 부수고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물을 아예 새롭게 짓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1:12의 경사비율에 맞춰 건물 한쪽 벽에 각 층을 연결하는 출입문(유효폭 120cm이상)을 마련하고 이를 연결하는 경사로(경사로 기준 적용)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경사로 양옆에 손잡이 설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6) 공중전화, 이렇게 하자.

여러 대의 공중전화 중에서 한 대는 반드시 장애인용 공중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7) 자원활동자 정보통신망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았다 하더라도 보조자가 필요한 장애 학생이 분명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 자원 활동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원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의(학생들의 가용시간을 활용)신청을 받아 자원활동을 원하는 장애 학생과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것이 자원활동 정보통신망이다. 이같은 예는 미국의 버클리대학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조자가 필요한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국가 보조 - 유급 자원 활동)을 연결하여 장애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원활동자 정보통신망 구축은 단지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8) 학교 측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

시설 설치 및 자원활동자 정보통신망 구축은 학교 측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

I. 조사의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대구대학교 등 95년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 시행학교인 6개 대학을 포함하여 96년부터는 21개 대학이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에 앞서 각 대학의 대강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 등은 95년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건물 외부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쟁점으로 만들고 각 대학의 관심 유도,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압력행사를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1개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34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건물 외부의 계단과 강의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와 이를 위한 모든 사업방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적 차원에서 접근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국민으로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편한 시설이면 일반인도 편하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2. 주요 조사 내용

이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을 파악하고 대학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 대상 대학은 강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 경희대학교 수원, 고려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 서창, 공주대학교, 나사렛신학대학, 대구대학교, 대 불공과대학, 명지대학교 서울, 명지대학교 용인, 부산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 교 서울, 연세대학교 원주,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주우석대학교, 제주대 학교, 한양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 안산 등 18개 대학 24개 캠퍼스로서

가. 노면과 보도 등 학교 전체내의 편의시설 문제와 자원활동자와 장애인을 연결해주는 정보통신

망 구축

나. 건물 외부 계단(경사로)

다. 출입문(구)

라. 강의실

마. 도서관

바. 복도

사. 화장실과 세면대

아. 승강기

자. 건물 내부의 계단

차. 공중전화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계단과 경사로 출입문, 강의실, 도서관, 복도, 화장실, 공중전화, 승강기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조항이며 세면대는 권고조항이고 노면과 보도, 자원활동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첨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실태를 조사했다.

3. 조사의 설계

가. 조사 기간 : 6월 20일-7월 30일(40일간)

나. 조사 대상 : 장애인대학특례입학 실시 학교

다. 조사 방법 : 조사자에 의한 실측(전수조사)

마. 조사 내용 :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문제점

바. 조사원 : 장애우대학생을 비롯한 자원활동자(5-7인 1조로 총 13개조 65명 참가)

사. 지도감수 :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과 교수), 조성룡(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사무국장),

아. 조사 도구 : 줄자, 장갑, 카메라

4. 조사 대상

애초 18개 대학 24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된 대학은 강남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수원), 고려대학교(서울·서창), 공주대학교, 나사렛신학대학, 대구대학교, 명지대학교(서울·용인),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주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안산) 등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5. 자료 분석 및 처리

조사된 자료는 백분율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1차적인 분석과정을 가졌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했다.

6. 조사의 한계점

본 조사의 한계점은 첫째 학교 거부로 실태조사를 하다가 자원활동자들이 쫓겨나거나 아예 교내진입을 못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둘째 계단에 대해 조사하려면 높이·넓이, 유효폭, 휴식 참 등 조사할 항목이 너무 많아 조사자들이 간혹 빠뜨린 경우가 있으며, 셋째 편의시설 혹은 건축과 관련한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 못한 자원활동자들의 실수 등으로 나타난 조사의 정확성 등이 본 조사의 한계이다.

II. 조사결과 요약

1.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은 단국대학교를 제외한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6개 대학(강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우석대학교)과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일반대학, 그리고 나사렛신학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 등 신학대학교 2개, 공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 2개, 전문대 등을 포함하여 모두 21개 대학 27개 캠퍼스이다. 이 중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를 했다.

2. 학교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

〈표 1-1〉 학교 전체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학교 전체를 알리는 점자안내지도가 있는 학교 수(A) / 학교 전체를 알리는 안내지도가 있는 학교 수(B)	0/18	0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된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장애인의 등하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장애인과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갖춘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학교 전체를 알리는 안내지도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안내지도와 점형 유도블록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교내 진입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대의 경우 부분적으로 점형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자가용이 고가품인 현실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스쿨버스나 대중버스일 것이다. 그러나, 조사가 실시된 모든 캠퍼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스쿨버스는 운행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다.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학생의 등학교 문제는 전적으로 장애 학생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아무리 잘 갖춘 학교라고 할지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자원활동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교내에서 자원활동자와 장애인을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갖춘 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대학특례입학제도가 장애가 경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노면이나 보도는 대부분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으나,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알려주는 경계석 등이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며 횡단보도도 단차가 거의 2cm 이상으로 나타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대학생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가 대부분 산 위에 세워져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교생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물이 그러하듯이 대학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강의를 받는 것조차 커다란 '모험'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충을 살펴봤을 때 시각장애인은 점자도서 구입과 점형유도블록이 없어 교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언어·청각장애인은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다가 언어장애로 인해 학사업무, 즉 학생증 재발급,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등과 도서관·식당 직원과의 대화가 안돼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목발을 이용하거나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은 건물 외부 계단 이용시 계단의 경사도가 심하고 손잡이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데다 경사도가 없어서 강의실 출입조차 힘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강의실 출입은 고사하고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좁고, 공중전화 입구의 턱, 강의실이 2층 이상에 있는 문제 등으로 대학 내에서의 모든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 내의 모든 식당이 대부분 셀프서비스라서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 학생은 아예 매일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 계단과 경사로

〈표 1-2〉 건물 외부 계단과 경사로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계단의 높이·너비가 규정에 맞는 대학수(A) /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대학수(B)	5/18	28
유효폭이 1.2m이상인 대학수(A) /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대학수(B)	10/18	56
휴식 참을 1.8m마다 둔 대학수(A) / 휴식 참이 필요한 계단이 있는 대학수(B)	3/14	21
규정에 맞게 손잡이가 설치된 대학수(A) /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대학수(B)	0/18	0
2cm이하의 단차가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6/14	43
경사도가 설치된 대학수(A) / 총대학수(B)	14/18	78
규정에 맞게 경사도가 설치된 대학수(A) / 총대학수(B)	0/18	0

건축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의 높이와 너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대학은 18개 대학 중 총 5개 대학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있고, 유효폭이 1.2m이상인 계단은 10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계단 중 휴식 참이 필요한 계단이 있는 대학 14개 중 휴식 참이 있는 대학 수는 모두 3개로서 약 21%에 불과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물 외부에 있는 계단에 손잡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 있는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축물 입구에 단차가 없거나, 있어도 2cm 이하여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2cm이하의 단차가 있는 대학 수는 단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하다.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를 넘지 않아야 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이어야 하고, 손잡이가 규정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대학 중 장로회신학대학만이 4개의 건물 중 1개 건물에만 규정에 맞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대학교에는 규정에 맞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경사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용인대학교와 나사렛신학대학,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제주대학교 등이다.

4.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문

출입문이 이중문인 경우 바깥출입문과 안출입문 사이가 1.2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출입문에는 손잡이가 바닥에서 80cm-85cm사이, 수평 혹은 수직의 긴 막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45%만이 규정에 맞는 이중문을 설치하였고, 손잡이가 규정에 맞는 것은 단지 13%뿐이다. 손잡이가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 있는데, 강남대학교, 서강대학교, 용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 등이 있다.

5. 강의실과 도서관

〈표 1-3〉 강의실과 도서관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출입문의 유효폭이 맞는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A) /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B)	1/18	5
경사로가 설치된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A) / 계단식 강의실이 있는 대학수(B)	3/13	23
규정에 맞는 도서관이 있는 대학수(A) / 도서관이 있는 대학수(B)	0/15	0

휠체어 좌우길이는 대부분 80-85cm로 모든 시설물의 통과 유효폭이 90cm이상이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조사 실시 대학 중 단 1곳만이 출입문의 유효폭이 맞는 강의실이 있다. 장로회 신학대학의 강의실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문의 유효폭이 90cm이상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공주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90cm이하로 나타났다.

계단식 강의실의 경우 경사로가 있어야만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된 대학내의 모든 계단식 강의실 중 2개 대학만이 계단식 강의실에 경사로를 설치해놓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모든 계단식 강의실에 경사로를 설치해놓고 있는 반면 한양대학교는 경사로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도서관은 개찰구의 유효폭이 90cm이상이어야 하고, 도서목록카드의 바닥에서부터 80cm-85cm 사이에 위치해야 하고 서가 사이가 적어도 120cm이상이어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서관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모든 대학 중 규정에 맞는 도서관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도서관이 있는 건물 외부에 계단이 버티고 있고 어렵게 계단을 올라간다 해도 개찰구의 유효폭이 대부분 90cm이하 즉 60-80cm사이로 너무 좁고 들어갈 수 없으며 90cm이상의 유효폭을 가진 비상개찰구도 없다. 또한 도서목록카드 등 일반 행정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대부분 100cm이상에 위치해 있으며 서가사이는 80-110cm정도 사이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건물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왔으나, 막상 개찰구의 유효폭은 65cm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있다.

6. 복도

〈표 1-4〉 유효폭과 손잡이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복도의 유효폭이 정상인 대학수(A) / 총 대학 수(B)	8/18	45
손잡이가 규정에 맞는 대학수(A) / 복도가 있는 대학수(B)	0/18	0
복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대학수(A) / 복도가 있는 대학수(B)	5/18	28

복도는 실제 유효폭이 1.2m 이상이어야 하고 손잡이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 복도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해야 한다.

조사된 대학내의 복도의 유효폭은 비교적 규정에 맞는 1.2m이상이나, 복도 중간중간에 교내 시설물들을 많이 쌓아놓아 실제 유효폭은 더욱 작게 나왔다. 문제는 복도의 양 옆에 손잡이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잡이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고, 복도 바닥이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대학은 단지 5곳에 불과했다. 나사렛신학대학만이 규정에 맞는 손잡이가 50% 설치되어 있다.

7. 승강기

〈표 1-5〉 승강기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학 수(A) / 5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총 대학 수(B)	13/18	72
규정에 맞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학수(A) / 5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총 대학수(B)	0/18	0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대학 수(A) / 총 대학 수(B)	0/18	0

승강기가 전혀 설치 안 된 학교도 있지만 용인대학교처럼 상당히 많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도 승강기가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다. 승강기는 조사대상 건물의 20%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말하자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대학도 없다.

8. 화장실과 세면대

〈표 1-6〉 장애인전용 화장실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된 대학수(A) / 총 대학수(B)	4/18	22
유효폭90cm이상인 화장실출입문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12/18	67
점자안내표시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고려대학교 서창과 서강대학교 등 일부의 학교에만 20% 미만으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조사된 모든 학교에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데 일반화장실조차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장애인의 대학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출입문의 턱 높이를 2cm이하로 낮추고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이상으로 하며 화장실내에 좌변기와 손잡이를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고 화장실 넓이를 가로×세로 길이를 150×150cm로 해야만 일반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된 학교의 거의 모든 화장실이 유효폭이 60-80cm사이이고 대부분 좌변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학교 전체내에 점자안내표시가 대부분 없듯이 화장실을 알리는 점자안내표지도 거의 없다. 제주대와 한양대 안산 캠퍼스만이 적은 수나마 점자안내표시가 있다.

〈표 1-7〉 세면대의 거울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화장실에 규정에 맞는 세면대가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냉온수 점자표기가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화장실에 규정에 맞는 거울이 설치된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세면대의 하단 높이는 65cm이하이고, 세면대 하부에는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세면대 좌우에는 기댈 수 있는 손잡이가 세면대 상단보다 6cm높게 설치되어야 하며 세면대 전면에는 손잡이가 25cm-30cm길이로 돌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세면대는 거의 전무하다. 서강대학교 내의 1개 세면대만이 이 규정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기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거울은 하단 높이가 90cm이하이고, 거울상단이 약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도록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맞는 거울이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 고려대학교 서창에만 설치되어 있다.

9. 주차장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함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가용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서도 교육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전체주차장의 1%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당 너비 3.3m 길이 5m이상이고,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해야 하고,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맞는 주차장이 설치된 대학교는 경희대와 연세대에서도 한 건물 앞에만 있고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서울이나 연세대학교 서울 등의 의과대학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으며 그 자리에 장애인 마크를 설치해놓고는 옆의 푯말에는 내빈석이라고 표시해두었으며 평소에도 내빈 전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10. 공중전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내에는 아직도 장애인용 공중전화가 한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대학내의 일반공중전화는 대부분 공중전화 입구에 3cm이상의 턱이 있으며 공중전화 박스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며 동전투입구 등이 너무 높아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전화 숫자 버튼에 점자로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중전화를 알리는 안내표시나 점자안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11. 건물내 계단 및 경사로

〈표 1-8〉 건물내 계단의 유효폭과 손잡이

(단위 : %)

항 목	B/A	백분율
높이,너비가 규정에 맞는 계단이 있는 대학수(A) / 총 대학 수(B)	3/18	17
계단의 유효폭이 1.2m이상인 대학수(A) / 총 대학 수(B)	8/18	44
휴식 참을 1.8m마다 둔 대학수(A) / 휴식참이 필요한 계단이 있는 대학 (B)	4/18	22
규정에 맞게 손잡이가 설치된 대학수(A) / 총 대학수(B)	0/18	0
경사로가 설치된 대학 수(A) / 총 대학 수(B)	5/18	28

건물내에 계단이 설치된 경우, 각 계단 디딤판의 단 높이는 15cm-16.5cm이어야 하고, 너비는 30cm-33cm 이어야 하며, 유효폭은 1.2m이상이어야 하고, 계단의 길이가 1.8m를 넘을 경우 1.8m마다 쉴 수 있는 휴식 참을 두어야 한다. 또 벽체로부터 5cm 떨어져서 지름이 3.2cm-3.8cm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손잡이를 바닥으로부터 80cm-85cm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손잡이는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보행자에게 알리기 위해 30cm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대학의 건물내 계단을 보면, 유효폭이 비교적 1.2m이상이나 디딤판의 높이와 너비가 규정에 잘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휴식 참을 1.8m마다 제대로 둔 대학은 3개대학교 뿐으로, 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계단 양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되어도 규격에 전혀 맞지 않아 장애인이 계단을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를 넘지 않아야 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이어야 하고, 손잡이가 규정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대학중 명지대 용인 캠퍼스만이 규정에 맞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대구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 등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다.

Ⅲ. 각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1. 강남대학교

1. 학교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

강남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10개 건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강의실 6곳, 도서관 1곳, 학생회관 1곳, 기타용도 2곳으로 구성되었다.

강남대학교는 고 백원욱(뇌성마비 장애인)씨가 가파른 교정에서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 사망한 학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조사가 과정에서 강남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거의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대학교는 학교를 알릴 수 있는 전체적인 안내지도나 방향표지가 있으나 점자안내지도나 점형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인과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남대학교를 알려주는 전체적인 안내지도와 방향표지에 점자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며 교내 전체적으로 유도블록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자원활동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 자체내에 장애인과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

보도가 대체적으로 평탄하지 않고 미끄러우며 보도에 이음새나 틈이 벌어진 곳이 있다. 또한 격자 구멍이나 틈새가 벌어진 곳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내의 보도 부분을 새롭게 정돈해야 될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경계석은 1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보도 이탈방지과 안전을 위한 점형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학교 차원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단보도의 단차는 2cm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 위에 세워진 이 학교는 교정내의 이동이 일반학생에게도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학교 교정 구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건물과 건물을 잇는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교정 내에 모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에서는 무턱대고 장애인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시급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축물 입구의 계단과 경사로

〈표 2-1〉 건물 외부 계단의 유효폭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건물수(A)	높이·너비가 규정에 맞는 건물수(B)	유효폭이 맞는 건물수(C)	B/A	C/A
9	2	9	0.22	1.00

〈표 2-2〉 건물 외부 계단의 손잡이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건물수(A)	손잡이가 설치된 건물수(B)	B/A
9	0	0.00

〈표 2-3〉 건물 외부 계단 옆 경사로

총 건물수(A)	경사도가 설치된 건물수(B)	규격에 맞는 경사도가 설치된 건물수(C)	B/A	C/A
9	4	0	0.44	0.00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9곳이고, 계단 디딤판의 높이가 규격(단 높이 15-16.5cm, 너비 30-33cm)에 맞는 곳은 2곳뿐이다. 이같은 이유는 학교 자체가 원래부터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학교내 모든 시설물의 경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계단 옆에 반드시 규정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계단을 다시 고치는 어렵고 따라서 계단 옆에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계단유효폭은 모두 1.2m이상으로서 적절하다. 휴식 참이 필요한 계단은 4곳인데도 1.8m보다 참을 둔 곳은 한 곳도 없다. 바닥으로부터 참을 둔 거리는 2.1m인 곳이 2곳, 2.3m인 곳이 1곳, 3.0m인 곳이 1곳이다. 또하나 가파른 계단 양 옆에 손잡이가 설치된 건물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축발의 원인이 되기도 해 건물 외부 계단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입구에 계단이 설치된 곳은 모두 9군데이나 경사도가 설치된 곳은 4곳밖에 없으며 이 중 경사로의 경사도가 1:12를 넘는 곳은 2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인 곳은 3곳이고, 다른 1곳의 경사로의 유효폭은 1.0m이다. 경사로에 휴식참을 둔 곳은 1곳뿐으로, 휴식참의 길이가 1.5x1.5m이다. 문제는 그나마 설치된 경사로 양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또한 경사로 안내표지와 점자표시가 경사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단차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곳이고, 2곳의 단차는 각각 7cm 와 무려 29cm로 나타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출입문

〈표 2-4〉 출입문의 손잡이

출입문이 있는 건물수(A)	손잡이가 설치된 건물수(B)	규격에 맞게 손잡이가 설치된 건물수(C)	B/A	C/A
10	10	0	1.00	0.00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으며 출입문의 유효폭이 90cm이상인 곳은 9곳이고, 이하인 곳이 1곳으로서 이 한곳의 출입문의 폭을 90cm이상으로 넓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이 자동인 곳은 없고 출입문에는 모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90cm인 곳이 1곳, 100cm인 곳이 2곳, 110cm인 곳이 7곳으로 나타나 손잡이 위치를 80-85cm위치에 장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손잡이의 단면이 수평 혹은 수직의 긴 막대인 곳은 2곳이고, 아님 곳은 8곳으로 나타나, 8곳의 출입문 손잡이의 모양을 수평 혹은 수직의 긴막대로 장치해야 한다.

4. 강의실과 도서관

〈표 2-5〉 강의실 출입문 유효폭

강의실이 있는 건물수(A)	출입문의 유효폭이 맞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수(B)	B/A
6	3	0.50

〈표 2-6〉 계단식 강의실과 경사로

계단식 강의실이 있는 건물수(A)	경사로가 설치된 강의실이 있는 건물수(B)	B/A
4	3	0.75

〈표 2-7〉 도서관

도서관이 있는 건물수(A)	규정에 맞는 도서관이 있는 건물수(B)	B/A
1	0	0.00

강의실 출입문 유효폭이 90cm이상인 곳은 3곳이고, 90cm이하인 곳은 5곳으로서 강의실의 모든 출입문의 유효폭은 90cm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계단식 강의실이 있는 곳은 4곳이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곳이다. 그런데 경사로는 1:12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계단식 강의실이 모든 건물 내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모두 1:12의 비율을 지켜 장애학생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도서관이 있는 건물은 1곳이고, 이 도서관 개찰구의 유효폭은 83cm이며, 폭이 90cm이상인 비상개찰구도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목록카드가 바닥으로부터 80-85cm위치에 있지 않다. 열람실의 서가사이가 84cm이다. 강남대학교내에 점자도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도서관 개찰구의 폭을 90cm이상으로 해야 하고, 휴여 도서관 개찰구 폭을 넓히지 못할 경우 폭이 90cm이상인 비상개찰구를 설치해야 하며 도서목록카드도 바닥으로부터 80-85cm위치에 설치하고 점자도서를 구비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복도

〈표 2-8〉 복도

복도가 있는 건물수(A)	유효폭이 규정에 맞는 건물수(B)	B/A
9	9	1.00

복도가 있는 건물은 9개로서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이다. 그러나 복도 양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어 문제로 지적됐으며 복도의 조명은 대체적으로 어둡다. 복도의 바닥은 평탄하나 미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6. 승강기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없다.

7. 화장실과 세면대

〈표 2-9〉 장애인 전용 화장실

총 건물수(A)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수(B)	B/A
10	0	0.00

〈표 2-10〉 좌변기 설치 여부

총 건물 수(A)	좌변기가 설치된 건물 수(B)	B/A
10	1	0.10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은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일반화장실에는 문앞에 턱이 있는 곳이 6곳으로서 무려 20cm인 곳도 있는데다 화장실 출입문은 폭이 90cm이상인 곳은 하나도 없으며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대체적으로 80cm-83cm사이며 변기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일반화장실의 문 앞의 턱을 2cm이하로 낮추고 폭을 화장실 문의 유효폭을 90cm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변기 양 옆에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실내에 좌변기가 설치된 곳이 단 1곳뿐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근처에 화장실 안내표지는 없어 좌변기 설치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 주차장

〈표 2-11〉 주차장

총 건물수(A)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건물수(B)	B/A
10	0	0.00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7곳이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차대수 1대당 너비는 2.2m-2.5m 등 다양하고, 주차대수 1대당 길이는 4.0m-4.9m 등 다양하다. 바닥면이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이며 평탄한 곳은 2곳이고 나머지는 미끄럽다.

9. 공중전화

〈표 2-12〉 장애인전용공중전화

총 건물수(A)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가 있는 건물수(B)	점자안내표시(C)	B/A	C/A
10	0	0	0.00	0.00

강남대학교 내에는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공중전화는 모두 턱이 있으며 점자표시가 없고 공중전화의 상단부분은 바닥으로부터 85cm이하에 위치하지 않고, 공중전화 투입구의 바닥으로부터의 위치는 97cm인 곳이 1곳, 100cm인 곳이 3곳, 110cm인 곳이 2곳, 120cm인 곳이 1곳, 170cm인 곳이 1곳이다. 따라서 장애인전용 공중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공중전화박스에 턱을 없애야 하며 점자표시를 하고 공중전화를 알리는 안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10. 건물내 계단 및 경사로

〈표 2-13〉 건물 내 계단

건물내에 계단이 설치된 건물수(A)	높이·너비가 규격에 맞는 건물수(B)	유효폭이 맞는 건물수(C)	B/A	C/A
10	2	9	0.20	0.90

〈표 2-14〉 건물 내 경사로

총 건물수(A)	경사로가 설치된 건물수(B)	규격에 맞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물수(C)	B/A	C/A
10	1	0	0.10	0.00

10개의 모든 건물 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계단디딤판이 규격에 맞는 곳은 2곳이고, 다른 계단들의 계단디딤판의 단 높이는 10cm에서부터 17cm까지 다양하고, 계단디딤판의 너비는 27cm에서부터 42cm까지 다양하여 계단 디딤판을 일반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유효폭이 1.2m이상인 곳은 9곳이고, 나머지 1곳의 계단의 유효폭은 92cm이다.

계단이 참이 필요할 정도로 1.8m이상인 곳은 9곳이고, 1.8m이하인 곳은 1곳이다.참이 필요한 9 곳 중 바닥으로부터 1.8m마다 참을 둔 곳은 1곳뿐이다. 계단 양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4곳이다. 그러나 손잡이의 지름이 3.2-3.8cm사이에 있는 곳은 없고 또한, 손잡이의 모양이 원형,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손잡이의 모양은 사각형이다. 계단의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cm이상 떨어져 있다. 계단의 손잡이가 바닥으로부터 80-85cm에 위치해 있는 곳은 2곳이고, 아닌곳은 2 곳으로, 손잡이의 바닥으로부터 위치는 87cm인 곳이 1곳, 88cm인 곳이 1곳이다.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 수평의 손잡이가 30cm이상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계단이 끝나는 부분의 수평손잡이의 길이는 각각 16cm-20cm이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곳이고,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를 넘고, 경사로의 유효폭도 1.2m이상이다.경사로의 길이가 10m를 넘을 때마다 참을 두어야 하는데 이 경사로는 휴식참이 있다. 그러나 경사로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럽고, 경사로 안내표지가 경사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1. 학교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는 강의실 4곳과 학생회관 1곳 기타 용도로 10곳, 건물 15개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희대 전체를 알려주는 안내지도는 있으나 경희대 전체를 알려주는 안내지도내에 점자안내도가 없고 점형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내에 자원활동자와 장애인과의 연결을 해주는 정보통신망도 없다. 보도는 대체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으며 보도블록과 벽돌 등 보도를 덮을 경우에 이음새나 틈이 벌어진 곳이 2곳이 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이 설치된 곳이 5곳에 그쳤다. 경희대학교도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황이 열악한 편으로 집계됐다. 건물 외부 계단에 경사로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계단에는 손잡이가 한 곳밖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전용주차장 등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2. 건물 외부 계단과 경사로

〈표 3-1〉 건물 외부 계단의 유효폭

건물 외부 계단이 설치된 건물수(A)	높이·너비가 규격에 맞는 건물수(B)	유효폭이 맞는 건물수(C)	B/A	C/A
7	7	5	1.00	0.71

〈표 3-2〉 건물 외부 계단의 손잡이

건물 외부 계단이 설치된 건물수(A)	손잡이가 설치된 건물수(B)	규격에 맞는 손잡이가 설치된 건물수(C)	B/A	C/B
7	1	0	0.14	0.00